



“열심히 뛰겠습니다”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대 광주시의회 개원식에서 시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어등산 한류 리조트, 물 건너가나

### 골프장측 기부토지 반환 소송에 땅 놓고 법적 다툼 尹시장 공약 시작부터 표류... 담당공무원 교체 주장도

윤장현 광주시장의 공약인 어등산관광단지 내 ‘아시아 한류스타 리조트 조성’ 사업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내 테마파크와 리조트, 유원지 건립 부지를 기부한 민간업체인 어등산리조트(골프장)로부터 기부받은 땅 반환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시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도 어등산골프장 우선 개발 업무에 참여한 대부분의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탓에 사태 해결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광주시청 간부는 논란의 중심에서 있던 어등산골프장을 수시로 이용해 왔으며, 특정부서는 ‘어등산골프장 부

과(課)’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진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관련 공무원 전면 교체 및 가장 ‘어등산관광단지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어등산리조트측이 광주시에 기부한 117만㎡(38만7000평) 부지에 아시아 한류스타 리조트를 조성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활약중인 국내 연예인 20명의 기념관을 지어 스타상품을 전시·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한류스타 리조트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광주 문화산업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사업비 800억원은 민간유치 50%, 국비 40%, 시비 10%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선 6기 취임 전인 지난 5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지법에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기부한 땅 117만㎡를 다시 되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면서 한류스타 리조트 조성은 커녕 기부받은 땅부터 지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다가 관련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어등산골프장) 분쟁과 관련된 과(課)가 여러 곳인데 어떤 과가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겠느냐”면서 “어등산리조트의 소송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도시공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어등산리조트에 대한 동정론도 나온다.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제시하면서 광주시에 요청한 소유권 이전, 사업자 명의 변경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등산리조트측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어등산리조트측은 분양권 판매 저조 등으로 월 평균 2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선을 달리면서 법적인 소송과는 별개로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을 첫 시작점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광주시 특별 전담팀을 구성,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관공서에 아직도 새마을기?

### 박대통령 취임후 ‘새마을운동’ 붐... “시대 안맞다” 지적도

광주시청(사진)과 시의회 등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의회 입구에 ‘새마을기’가 게양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인 새마을기의 게양은 시대 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자매도시나 역점사업 등을 게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청 앞, 시의회 앞에 각각 설치된 3개의 깃대(이하 국기 게양대)에는 오른쪽부터 새마을기, 태극기, 광주시기(시의회기)가 나란히 게양돼 있다. 이 중 새마을기는 깃면 바탕색인 녹색을 통해 농촌의 녹색 혁명을 구현하고 있으며, 깃면 내 표장의 황색 원은 협동과 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녹색의 일과 썩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 및 희망과 소망을 상징한다는 게 새마을단체의 말이다.

새마을기는 1973년 6월 당시 내무부 권고 지침에 따라 전국 행정기관 등에 첫 게양됐으며, 1976년부터는 내무부 강제 지침으로 모든 공공기관 입구에 게양하게 됐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평가 여론 등이 일면서 기 게양을 기관 자율에 맡기도록 지시사항이 수정됐다. 새마을기를 게양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관행적으로 태극기, 기관기와 함께 새마을기를 게양하면서 40년이 넘도록



녹색 새마을기가 자치단체의 입구를 지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2의 새마을운동’ 붐이 일면서 관공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기의 게양이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시도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청사 앞에 매일 24시간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법과는 별개로 양 옆에는 새마을기와 시청기를 내걸고 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광주시청사 깃대의 새마을기 게양을 반대하는 주장도 나온다. 새마을기 대신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상징기나 자매도시기, 평화를 상징하는 단체의 기 등을 시기와 일정에 맞춰 게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그동안 (게양을)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 ‘...넘어...넘어’ 증보판 나온다 **간행위, 내년 5월 발행 “5월 항쟁 순수성 알리겠다”**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진상을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증보판이 내년 5월 간행된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증보판 간행위원회(위원장 정상용)는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사회 보수화의 흐름을 등에 업고 일부에서 5월 항쟁의 북한 사주설을 제기하고 항쟁 참여자를 비하하는 등 5·18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5월 항쟁의 순수성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알리고자 증보판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간행위원회는 “5·18 민중항쟁은 한반도 민주화 운동의 빛나는 금자탑”이라며 “5월 항쟁의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영어본 등 외국어 번역본도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1985년 소설가 황석영씨가 5·18 민중항쟁

10일간을 기록한 책으로, 그해 일본어판이 발간됐고, 1999년 영문판이 발간됐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황석영씨가 수사기관에 연행되고 풀빛출판사 나병식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책은 제작도중 1만여권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전국의 서점에서 비밀리에 팔리며 ‘지하 베스트셀러’가 됐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밝은광주안과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분 야 : 간호조무사, 검안사, 코디네이터(데스크,상담)  
조 건 : 성별, 나이, 경력 무관  
담당자 : 062) 351-9934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밝은광주안과**

##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금지원
- ☞ 대출한도는 최고 지원
-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 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광주지역 자산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현재 장기예금 금리 1년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사업소 720-2880